

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미국 생보사의 화두는 자본 강화

- 10월20일 신용경색이 호전의 기미를 보이면서 은행주가 상승하는 가운데 Goldman Sachs는 ‘신용경색의 확대, 모기대출환경의 악화로 가까운 시간 내에 생보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’고 주장하면서 생보사 주식 매도를 권고함에 따라 오전 한 때 생보사 주가가 급락하였으나 오후 들어 반전되는 양상을 보임.
 - ‘매도’로 평가받은 Prudential Financial은 오전 한 때 9%까지 하락하다 반등하였고, ‘중립’으로 평가받은 Metlife는 3% 하락한 후 오후 들어 랠리가 있었고, Principal Financial Group은 4% 하강한 후 약진하였으며, Hartford는 7% 하락한 후 오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섬.
 - 영향력 있는 Goldman Sachs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반등세를 시현한 것은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Goldman Sachs의 의견에 동조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쏟아내면서부터 발생함.
-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생보사들이 Fannie Mae, Freddie Mac, Lehman Brothers, AIG, Washington Mutual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이후 이로 인해 적자를 시현할 것이라고 발표했었고 시장은 이미 이에 반응하여 생보사의 주가가 50% 이상 하락하였는데, 이제 와서 신용경색 노출로 인해 다시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임.
- 나아가 생보사들은 현재 신용경색에 대해 걱정하기 보다는 ‘과연 지금의 자본구조로 신용평가 기관의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?’라는 투자자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함.
 - 생보사들은 투자자의 관심이 자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자본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가운데 신용평가 기관들은 생보사 그룹에 대한 평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Metlife는 20억 달러 가치의 주식을 매도하였고, Hartford는 Allianz로부터 25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들여 자본을 강화하였음.

- 또한 일부 애널리스트는 Metlife와 Prudential 등의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생보사 그룹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처음 제공하였던 Harry Reid 하원의장의 실수가 컸음을 지적함.
 - 하원의장은 구제금융 지원 통과를 요청하는 가운데 하원결의가 더 이상 늦어질 경우 또 다른 대형 보험사의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장되게 주장함에 따라 생보사의 주가가 급락세를 시현하게 됨.
- 더 나아가서 애널리스트들은 AIG의 매력적인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후보로 생보사를 꼽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생보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생보사간의 M&A는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M&A로 인해 당면한 자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.
 - M&A로 인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자본구조에 큰 구멍을 안고 있는 두 회사의 결합은 다른 더 큰 구멍을 낳을 뿐이라고 언급함.

(CNN Money.com 10/20)